

신축년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정알레 봉행



2021년 2월 14일(음력 정월 초3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골에서 안동권씨 일족(一族)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년(辛丑年) 정알레(正朔禮)를 봉행하였다. 해마다 시조 태사공(太師公) 및 낭중공(郞中公) 정알레 때는 일족 20~3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餘波)로 권속동 안동종친회장, 권기호 파종회장단협의회장, 권정창 전례위원장,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등 4명이 유건(儒巾)과 도포(道袍)를 입고 참석하였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동권씨는 참석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함과 동시에 거리두기를 하는 등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권오의 사무국장이 사전에 준비한 주과포(酒果脯)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평창공(平昌公) 묘소에 권기호 파종회장단협의 회장이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재배

(再拜)하였다. 이어 시조 묘소에서 약 350m 떨어진 낭중공 단소로 이동, 주과포를 차려놓고 권속동 안동종친회장이 분향 헌작하고 재배하는 것으로 능골의 정알레는 모두 마쳤다. 안동지방에는 이른 아침부터 겨울비가 조금씩 내렸으나 정알레 봉행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날씨가 따뜻해서 마치 봄 날씨를 방불케 했다. 이에 앞서 안동태사묘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김효진 태사묘관리위원장, 권용주, 장기용 두 부위원장, 장수식 사무국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과포를 준비, 신축년 정알레를 봉행하였다. 해마다 태사묘 정알레 때는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들이 40~50여명 참석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2月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선임》

'21.02.08자 권오순 이사(총주)

'21.02.23자 권중진 부회장(하늘소풍 수목장 대표이사), 권순길 이사(서울송파)

《인사발령》

'21.02.24자 권오상 총무국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임

《찬조금》

부회장

권오성((주)비바스푸드 회장) 1,000,000

권용일((주)세화금속ENG대표) 1,000,000

권정택 상임위원(경기고양) 1,000,000

권경협(부산사상구 의원) 1,000,000

이 사

권오순(총주) 300,000

권순용(경기구리) 300,000

권오준(서울중구) 300,000

권태왕(서울노원) 300,000

총무 위원

권갑현(영주) 200,000

권정환(상주) 200,000

총 : 5,6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3세부터 9세까지 설단은 안동권문의 역사적 과업

권기 천백 년 역사의 종통(宗統)을 수립하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도리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근원이 깊은 물은 멀리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안동권문이 한국 최초로 가문의 족보를 편찬하고 근본을 튼튼하게 하여 자손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문은 시조 태사공 이후 천백 년 동안 벼슬이 높고 덕망 있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위대하신 시조 태사공을 비롯한 여러 선조께서 음으로 도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후손들은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대중회를 결성하고 15개 파종회와 각 지역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친 간에 족의(族誼)를 돈독히 하며 조상의 유업(遺業)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조 태사공을 능동 묘소에서 대중회 주관으로 춘추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삼태사묘(三太師廟)와 운곡서원에 서로 각기 향사를 받들고 있습니다. 낭중공의 경우는 설단하여 단소에서 제사하고, 각 파별로 분기되는 10세부터는 파종회별로 각 파조(派祖) 단소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세에서 9세까지는 묘소도 설치되고 단소도 없으며 사당이나 서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사를 아예 받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결사(闕祀)되어 온 것은 아마도 겨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손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사공에서 열다섯 분 파조(派祖)에 이르기까지 <원류도(源流圖)>나

<세계도(世系圖)>를 크게 그려서 대중회, 파종회, 지역종친회 등의 사무실에 게시(揭示)하고, 또한 족보, 파보 등에도 모두 신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권기權紀 천백년사千百年史》에도 그 사적(事蹟)이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세에서 9세까지의 선조에 대한 단소를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봉설(奉設)하여 제향을 받드는 일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소망한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도리이자 이제 더 이상 늦추거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설단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설단 장소와 설단 이후 전례 형식과 전례 비용을 비롯하여 전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 그리고 전례 시간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

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과 시간 등은 차후에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존경하는 족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세에서 9세까지의 설단 문제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단 한 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족친 여러분! 안동권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거족입니다. 그뿐입니까 안동권문의 본향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본관으로 두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에서 안동권문의 종통(宗統)이라고 할 수 있는 3세에서 9세까지의 선조에 대한 단소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손된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종보를 통해 보도되었듯이 설단에 필요한 비용을 족친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독자가께서 안동권문의 자긍심과 위상제고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그 금액도 이미 대중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선대 설단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 안동권문의 역사적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100만 족친 여러분! 한국의 모든 성씨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단결하고 화합하여 한국정신문화의 표본을 제시하는 안동권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권기 1092년 2021년은 안동권문 역사의 종통을 수립하는 역사적 결단의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조 태사공

아시조 낭중공

3세 책冊

4세 균한均漢

5세 자팽子彭

6세 선개先蓋

7세 염廉

8세 이여利輿

9세 백시伯時

선조 7분의 묘소가 없어 단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檢校公派	검교공파	戶長公派	호장공파	正朝公派	정조공파	軍器監公派	군기감공파	中允公派	중윤공파	給事中公派	급사중공파	侍中公派	시중공파	副正公派	부정공파	別將公派	별장공파	佐尹公派	좌윤공파	同正公派	동정공파	僕射公派	복야공파	樞密公派	추밀공파	副戶長公派	부호장공파	宗派	종파

* 일련번호는 안동권씨는 15개 파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편의상 표기.

2021년 始祖 太師公 春享祭 案内

2021년도(權紀 1092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 시 : 2021년 4월 5일(월),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 이번 춘향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위원회 중심으로 간소하게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전례위원과 헌관은 반드시 참제하여 주시고, 족친 여러분께서는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족친여러분께서는 4월 5일(월) 오전 10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하여 1분간 묵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춘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